

타지키스탄에서의 한국형 ODA의 특수성 : 전력에너지분야 중심으로

박주영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러시아학과 석사과정)

- I. 서론
- II. 중앙아시아지역에서의 한국형ODA 모델
 - 1. 국제원조의 진화와 이념적 기반
 - 2. ODA일반 개념과 목적
 - 3. 한국 ODA의 발전
 - 4. 한국형 ODA의 개념
 - 5. 한국형 ODA실행에 적합한 타지키스탄
- III. 타지키스탄에서의 전력분야 개발을 위한 한국형ODA지원 - 수자원을 이용한 전력분야중심으로
 - 1. 타지키스탄 전력현황
 - 2. 타지키스탄 정부 전력난 해결을 위한 노력
- IV. 對 타지키스탄 전력 시스템 원조 전략과 프로그램
 - 1. 원조 효과성 제고에 따른 원조실천 방안
 - 2. 한국형 ODA 개발 협력 사업의 프로그램 방안
- V. 결론

초 록

한국은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tant)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변화를 거친 나라로 경제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국제적 위상이 올라가면서 ODA 규모도 점차 확대하고 있다. 특히 2009년 OECD DAC 가입 이후, 국제적 주목을 받고 있으며, 현재 원조의 규모확대와 함께 한국의 ODA개발효과성에서 대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선진국의 전통적인 ODA와는 차별되는 정책제안 및 인프라 구축 등 한국의 우위분야에서 한국의 특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한국형 ODA 모델을 모색하고 있다 . 본고에서는 한국 형 ODA 모델을 정의하고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비교적 자원 빈곤이라고 할 수 있는 타지키스탄을 재조명해 전력발전 분야에서 한국 ODA 의 특수성을 정리하고자 한다.

I. 서론

우리나라는 1945년부터 1991년까지 128억 7,600만달러에 이르는 원조를 받았으며, 전체 원조 규모의 약 90%되는 미국과 일본의 원조 중 미국의 원조는 50년대까지 무상으로 제공되었다. 1945년부터 60년 사이 원조 제정은 연평균 4.9%의 성장에 11.8%의 투자율을 달성했으며, 60,70년대 한국의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약 반세기 동안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다가 91년 KOICA를 설립하면서 ODA공여국이 되어 최초로 수원국이 공여국이 되었으며, 2009년 11월 OECD내 원조 클럽인 DAC에 가입하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국제 ODA역사에서 한국의 사례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여타 수여국에도 좋은 모델이 될 뿐더러 공여국에게도 국제개발협력의 희망이 되는 것으로, 공여자로서 한국ODA의 시작이 매우 의미있는 것이지만, 지난 몇년간의 한국의 ODA 결과를 살펴봤을때 원조 규모뿐만 아니라 국제수준에 충족시킬만한 원조를 위해서 통일되지 않고 분산된 원조 기관과 사업 평가제도 등 개선해나가야 할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ODA규모는 지난 해 8.2억불로 DAC회원국 중 19위, GNI 대비 ODA비율 0.1% 최하위 비율로 DAC회원국으로써 충분한 규모에 못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 GNI비율 0.25%로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ODA예산을 늘여 경제규모가 비슷한 네덜란드나 캐나다의 원조 규모에 맞추어 국격을 세우기 위한 정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적은 규모의 원조이지만 얼마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 제한 평가와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국제적 이미지를 위해서 숫자에 치중해 어떠한 원조를 어떠한 방법과 절차로 이뤄나가야 할지 구체적인 전략 없이 원조규모를 3,4년 내에 갑자기 대폭 늘이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원조 수여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특징도 있지만, 전세계에서 분단국가로서 북한을 무상원조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매년 ODA규모에 북한 원조에 대한 계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최빈국을 위한 원조규모가 다른 DAC회원국에 비해 저조하다는 점도 중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우선순위로 보았을때 원조 규모를 늘이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때문에 우선 한국 ODA의 앞으로 갈 길이 과연 이상주의적 공적개발원조와 자국 기업의 투자를 돕고 수여국내 정치적, 경제적 수완을 위한 현실주의적 공적개발원조 그리고 또 다른 대안 중 어떤 길을 선택할지에 대한 여부와 매년 늘어나는 ODA 원조 기금의 개발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먼저 이루어져야한다.

[표 1] 한국정부의 연차별 GNI 대비 ODA비율 확대 계획

연도별	'09 실적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ODA/GNI(%)	0.1	0.11	0.13	0.15	0.18	0.21	0.25

출처: 외교통상부, ODA KOREA

2004년부터 논의되어왔던 한국형 ODA모델이 무엇이며,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ODA재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용해 구소련 붕괴 이후 독립한 중앙아시아 지역¹ 중 비교적 더딘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는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지역에서의 개발 효과성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연구해야한다고 본다. 단순히 발전소를 지어주거나 건설에 필요한 자금만 유상, 무상으로 지원해 줄것이 아니라, 이미 한국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수력, 태양열을 이용한 발전 기술을 전수해주고 이후 유지 관리에 필요한 시스템과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지속적인 개발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 연구의 목적은 지금까지 자원 부국인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중심으로 이뤄진 한국 정부의 대 중앙아시아 지역의 개발 원조를 MDGs의 기본 목적에 더 상충하는 지역을 선별해야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자원 빈국인 타지키스탄에 대한 산업활동 및 국민 생활에 전반적인 문제점의 원인인 전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ODA의 필요성과 이 지역에서의 한국정부가 주도하는 한국형 ODA에 대한 의미와 특수성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II. 중앙아시아지역에서의 한국형ODA 모델

한국의 ODA는 90년대부터 시작해 20년간 발전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오랜 국제협력원조 역사를 가졌으며, 식민지배 경험을 가진 선진국들의 전통적인 국제개발협력 방식을 따르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2000년대에 들어서 우리와 다른 여건과 역사를 가진 선진국의 국제개발협력과 차별성을 가진 한국만의 국제개발 협력 정책을 개발해야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한국의 비교우위 분야에 집중하여 원조로 인한 개도국의 개발성과 및 국가

¹ 구소련 붕괴 이후 독립한 중앙아시아 지역 중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아제르바이잔 지역. 카자흐스탄은 ODA대상국에서 2010년부터 제외됨.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국가 전략차원의 원조 모델 개발을 하게 되었다. 식민지배와 독립 경험, 국내 민족간 전쟁, 민주주의성립을 위한 운동,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의 변모, 빠른 경제발전을 이룩한 한국의 경험들이 이전 한국이 겪은 상황에 처해 있는 개도국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한국만이 보유한 특수성이 한국형 ODA모델 형성의 기본이다. 또한, 2010년 7월26일에 실행된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제3조의 기본정신의 틀안에 주장하는 3가지 가치인 개도국의 역량배양을 통한 자립능력개발,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 추구, 우리나라의 국격제고가 한국형 ODA의 기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1. 국제원조의 진화와 이념적 기반

국제원조는 동서 양 진영의 냉전속에 미국과 소련의 외교적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식민지였던 국가들의 독립에 따라 원조의 목적이 개발이 추가되었다. 이후 반세기가 지나면서 원조의 형태와 기법들도 발전해 왔으며, 최근에는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논의가 국제사회의 국제원조에 대한 중심적 주제가 되고 있다.² 미국의 국제원조 전문가 캐롤 랭카스터에 의하면 "냉전의 위협이 없었다면 미국은 절대로 원조 프로그램을 시작하거나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하도록 압력을 가하지도 않았을 것이다."라고 언급했으며, 원조의 대한 문헌들이 거의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다 초기 국제원조 프로그램으로 마셜플랜³이었으며, 미국은 1948년부터 1952년까지 미국GDP의 1.1%에 해당하는 약 130억달러의 예산을 유럽지역 재건을 위해 제공하게 된다. 1950년대와 1960를 거치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의 식민지국가들의 독립에 따라 신생독립국의 자립을 돕는 차원에서의 개발원조가 시작되었다. 그러한 국제원조는 1991년 소연방 해체때까지 동서 양 진영의 세력 구축을 위한 냉전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1970년에 들어와서 국제개발원조 (현재의 ODA)개념이 도입되어 적용되었다. ODA개념의 도입과 기술적 변화와 함께 국제개발원조행위자들도 다양화 되었으며, 1960년까지 DAC전체 순원조의 57.7%를 차지했던 미국의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다른 원조 행위자의 비중이 서서히 늘어나게 되었다. 두번의 오일쇼크와 국제금융위기로 한동안 감소추세였던 국제 개발 원조가 2000년대 들어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유상원조와 구속성원조가 비교적 줄어드는 변화를 보였다.

² 주동주, 2008 국제개발협력의 역사와 그 성과 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음

³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7년부터 1951년까지 미국이 서유럽 16개 나라에 행한 대외원조 계획으로 정식명칭은 유럽부흥계획(ERP: European Recovery Program)이지만,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마셜(G.C. Marshall)이 처음으로 공식제안하였기 때문에 현재 '마셜플랜'이라고 불린다.

국제개발원조에 대한 공여국이 늘고 전규모로 볼때 해마다 원조규모가 증가하고 있지만 한편, 지속적인 개발로 이뤄지지고 않고 수원국의 자립력을 저하한다는 국제 원조에 대한 회의감과 개발에 대한 비판시각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ODA 일반 개념과 목적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선진국과 개도국 또는 개도국들 사이의 개발격차가 인구, 경제, 교육, 인프라 등과 같은 다양한 경제적, 사회정치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인식 하에, 선진국들이 국가별로 또는 국제기구들을 통해 개도국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벌이는 대표적이 국제 협력 사업의 하나이다.

지난 2000년 UN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2015년까지 절대빈곤 및 기아의 퇴치를 비롯한, 보건, 환경, 교육, 모성보건 분야의 개선을 주 목표로 하는 밀레니엄 개발목표를 채택되면서 많은 선진국들이 공적개발원조의 확대를 통해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지원을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도 국가 이미지 개선과 MDGs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세력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개도국에 대한 ODA를 확대 실시해 국가의 위상을 제고하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국익 실현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개도국에 대한 자금은 ODA, OOF⁴, PF⁵ 3가지 자금 흐름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중 ODA는 중앙 및 지방 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원조를 뜻하며, 정부 또는 정부의 원조 기관에 의해 공여되며,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기여된다.⁶ 자금 공여조건은 개발도상국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무상 부부를 일정 비율 이상으로 한다는 조건을 갖춰야한다. 지금까지 개도국에 대한 원조는 개발원조 혹은 외국원조 등 다양하게 명칭되어 왔다. 하지만 ODA개념은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 폭넓게 사용되어 왔으며, 한국에선 역사적으로 전후 남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국제적으로는 냉전체제 하에서 정치, 군사적 목적의 지원이 확대되었었고, 많은 선진국들이 개도국에 대한 통상수단으로 이용해 국제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이후 ODA는 OECD차원에서 엄격한 기준에 의해 규제되어왔다. 우선 ODA는 수행하는 목적과 주체, 지원 조건이 ODCE기준⁷을

⁴ OOF (Other Official Flow)기타공적자금

⁵ PF (Private Flow)민간자금

⁶ 외교통상부 ODA KOREA, ODA개념(<http://www.odakorea.go.kr>)참조

⁷ 경제개발과 복지의 증진을 주목적으로 해야 하며, 차관일 경우 양허성이 있는 재원이어야하며 증여율(grant element)가 25%이상 이어야한다. (OECD DAC, 1987:1)참조

충족해야하며, 군사, 종교 목적의 지원, 학술및 문화교류차원의 지원,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지원은 ODA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사업 주체에 따라 양자간원조와 다자간원조로 구분되며, 양자간 원조는 원조 공여국에서 수원국으로 원조 자금및 물자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고, 다자간 원조는 IMF, World Bank, UN등의 국제기구에 대한 출자 및 분단금을 통해 제공되는 형태이다. 양자간 원조의 경우 상환조건에 따라 무상원조(grants), 유상원조(loans)로 구분되며, 수원국의 조달하는 수입 물자나 용역의 조달처를 공여국 또는 일부 수소국가로 한정하는 구속성(tied)와 제한이 없는 비구속성(untied)원조로 구분된다.⁸

3. 한국 ODA의 발전

한국은 전후 해방된 식민지로서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 재원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했다. 특별한 투자 재원이 없던 상황에서 해외원조를 바탕으로 개방형 시장경제를 성공시켰으며, 이러한 케이스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 해외직접투자(FDI)를 유발할 매력적인 시장이나 자원이 전무한 상태인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선진국의 초기 원조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으며, 사실상 가동할 수 있는 재원의 전부였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이 받은 역대 받은 무상 원조의 70%는 1945년과 60년대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기간동안 6.25전쟁을 겪었지만 국제원조를 바탕으로 전후 인플레이 억제와 재정안정 정책을 실시했고 산업설비투자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1945년부터 1960년간 연평균 4.9%의 성장률을 보였다. 당시 미국으로부터 받은 원조 총액은 31억달러로 현재 화폐가치로 계산하면 약 600억 달러에 달한다. 1960년 1월에 제정된 '외자도입촉진법'이 후로 미국 이외 선진국으로부터 적극적 외자 도입이 이루어지고, 일본이 해외원조 자금과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개발은행(IDA)등 다자기구의 원조도 들어오기 시작했다. 1997년 금융위기로 인해 일시적으로 IMF의 긴급원조자금을 받기도 했지만 1995년 세계은행 차관 졸업국이 되면서 수원국으로의 역사도 끝나게 된다. 북한과의 외교 경쟁과 함께 한국 경제의 성장에 따른 시장 확보차원에서 개발원조를 시작하게 된다. 한국의 최초 원조 공여 사업은 1963년에 시작되었으며, 당시 초기 형태는 미국의 AID자금과 UN의 자금으로 소수 개도국 훈련생을 초청해 연수하는 것이었다. 1977년에는 외무부가 국회로부터 9억원의 예산을 얻어 순수 한국의 자금으로 개도국에 대한 물자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되며 이 사업이 더욱 확대되어 1982년부터 한국개발 연구원(KDI)로 한국의 개발경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⁸ 외교통상부 ODA KOREA (<http://www.odakorea.go.kr>)참조.

국제개발연찬사업(IDEP)가 시작되어 1980년대 후반까지 꾸준한 활동을 하게 된다. 1987년 서울 올림픽 전후해 한국정부 내에서 개도국과의 협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가 설립되고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이 설립되어 본격적인 원조 제공의 기반이 구축된다. 2000년대 들어오는 무렵까지 한국의 ODA라는 인식이 불분명해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원조라기보다 우리의 해외시장 확보를 위한 경제협력이라는 개념이 더 강했다. 2009년이 되어서야 ODA기본법이 논의끝에 제정되고 ODA 규모도 크게 증가했다. 1987년 2,350만 달러에 불과했던 규모가 꾸준히 증가해 1993년 1억달러를 넘어섰고, 2008년에는 8억 234만 달러로 이기간동안 무려 34배나 늘어났다.⁹ 그러나 GNI비율은 2010년 기준으로 0.11%로 UN이 권장하는 0.7%에 이르기에는 많이 부족한것이 현재 상황이다. 때문에 국제사회는 한국의 성장한 국력에 걸맞는 국제적 의무 부담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의 대외무역의존도와 해외 자원의존도 또한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개도국 등에 대한 해외원조 증액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으며, 현재는 한국형 ODA라는 선진국ODA와 차별성을 지닌 국제개발협력형태로 단기적으로는 무상기술협력및 유상원조를 적절히 병행하고 중기적으로 유,무상 원조수단을 혼합,연계한 부문별 원조방법¹⁰을 선택하고 있다.

4. 한국형 ODA의 개념

2005년 4월 외교통상부가 마련한 <정부 개발원조(ODA)선진화 방안>에서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경제 개발을 이룩하고,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유일한 국가로서 경제개발과 정상의 경험을 전수해 우리나라만의 비교우위를 활용하고,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에 위치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형식의 한국적 원조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선진국들의 전통적인 국제개발협력 방식을 그대로 따르기에는 한국의 ODA역사나 현재 한국상황과는 맞지 않다는 것을 기본으로 국제적 원조 규범을 존중하면서 선진국들의 원조방식과는 차별성을 지닌 한국의 비교우위 분야에 집중한 원조를 해야한다는 아이디어가 한국형 ODA의 시작이다. 이에 따라 어떤 원조를 공급할 것인가에 대해 최근의 성공적인 개발성과를 기반으로 국가의 주요 산업과 관련되어 기술적인 비교우위가 있는 원조를 해야하며,

⁹ 선진국의 ODA공여실태 분석과 한국의 대외원조 전략2009 (120p.) 참조

¹⁰ 국제개발협력 개선방안 2005,국무회의 보고자료 인용

동시에 타 공여국의 지원이 미흡한 혁신적인 틈새시장과 이미 이전의 원조로 인해 성과를 증명된 분야를 집중적으로 원조하겠다는 것이 한국형 ODA의 기본 전략이다. 이 세가지 전략을 원조의 분야, 지역, 규모 그리고 실시방법의 네가지 측면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한국형 ODA의 첫번째 측면은 이미 한국이 정치, 경제, 사회 개발을 이끌었던 제도와, 지식, 기술을 바탕으로 타 개도국과 공유하여 국제적 개발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한국이 기술적으로 비교우위에 있으면서 다른 공여국과 차별화하여 원조의 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원조 분야이다. 두번째 측면인 원조지역은 한국과 지리, 언어, 문화 역사 혹은 한국의 개발초기 조건면¹¹에서 유사한 나라로 한국의 개발경험 공유에 관심과 수요가 높은 협력국을 말한다. 또한 다른 공여기관의 원조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으며, 한국NGO나 기업등 민간부문의 현지 활동이 활발한 나라를 우선시한다. 규모측면에서는 해당 원조목적코드 CRS code:Creditor Reporting System code분야에 대해 최소한 DAC회원국의 평균지원 이상이 되도록 하며, 이상적으로 주 공여국의 지원수준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하는 것이다. 마지막 측면으로 원조 실시방법은 정책자문과 인프라 구축 그리고 인적역량 강화의 요소가 균형을 이뤄 신흥공여국과 선진국 원조 방식의 장점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개별사업을 통합해 각장의 장점을 살리는 사업요소를 투입하는 것이다.¹² 한국형 ODA는 국제원조규범을 준수하고 협력 대상국의 주도하에 타 공여국과 조화되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원국의 문화를 도외시하지 않고, 원조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수원국과 정보를 공유하여 인권개발 요소가 포함된 선진적 원조 모델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추가해야할 사항이다.

5. 한국형 ODA실행에 적합한 타지키스탄

한국 정부가 2007년부터 종합대책에서 주요 안건으로 두고 있는 국가전략차원에서의 한국형 원조모델의 지원분야는 한국의 비교우위가 될 수 있는 경제발전경험, 보건위생, 환경, 교육 직업훈련등 인적자원개발, 인프라 구축, 대체 에너지 시스템, IT등의 분야를 들고 있으며, 덧붙여 지식기반중심의 제도역량을 키우고 굿 거버넌스 등 민주주의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인간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¹³ 여러 중앙아시아 지역 중

¹¹ 인구수, 소득수준, 극단적인 정치적,경제적 혼란등으로 한국의 개발초기조건과 비슷한 국가를 선정할수 있다. (박복영외, 한국경제발전 경험의 대개도국적용가능성, 2007)

¹² 정우진,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 한국적 경험과 비교우위에 근거한 섹터별 프로그램, 2010 참조

¹³ 국무조정실, 한국정부의 한국형 개발원조 모델 정립 방안2005.11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이 한국 비교우위가 되는 지원분야와 한국형 ODA의 네가지 측면에서의 원조 목적과 성격과 잘 매치된다. 물론 이 네 국가마다 다른 차이점이 있어 모든 특징을 단일화 할 수 없지만, 지난 역사적으로 볼때 예측할 없던 구소련 붕괴이후 독립한 역사적 사실과 비슷한 기후와 지리적, 문화적 조건을 지니고 있으며, 아프리카 국가들과 달리 구소련 시대에 생겨난 산업기반이 존재해 있다는 점이 공통적인 특징이며, 앞으로 경제발전과 함께 여러 사회적 문제와 민주주의를 이뤄내야한다는 과제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점이 있다. 이러한 중앙아시아 국가의 특징들이 한국형 ODA가 이뤄낼 수 있는 성공요인으로 작용할 요소들이다.

이미 한국 정부는 중앙아시아 국가 중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에서 ODA를 통한 협력을 해왔으며 의료, 인적개발, 에너지개발분야에 있어서 성공적인 사례들이 있다. 한국 이외에 일본, 중국을 비롯해 많은 OECD회원국들이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개방적인 시장을 형성해 있어 투자가 용이한 카자흐스탄에 집중적인 투자를 위한 발판으로 여러 국가가 ODA를이용해 접근해 왔다. 카자흐스탄의 GDP향상으로 인해 2010년 이후로 ODA수원국대상 리스트에서 카자흐스탄이 제외되었으며, 이에 중앙아시아 지역중 두번째로 천연자원이 풍부한 우즈베키스탄에 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적 개발지원을 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정부는 나보이 자유산업경제특구 건설과 우즈베키스탄 재건, 개발펀드 (FRDU)등을 내용으로하는 경제발전 장기 전략을 세워 투자프로젝트 프로그램을 2014년까지 입안중에 있으며,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시장진출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한 주요 산업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첨단 투자기술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우즈베키스탄정부의 적극적인 경제개발 전략으로 인해 현실주의적 ODA를 추진하는 국가들이 한국을 포함해 적극적인 원조를 하고 있지만, 비교적 원조가 더 시급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ODA기본 목적에 부합하는 키르기스공화국과 타지키스탄은 우선권에서 밀려있는 상태이다.

[표 2] 한국 정부의 대 중앙아시아 ODA지원 현황

(단위 천불, 기간 1991~2007)

	유상원조	유상원조 내용	무상원조	무상원조 내용	지원 총액
카자흐스탄	19841	-통신망 현대화 사업	16462.3	-컴퓨터 교육센터 설립 지원사업 -우정병원 건립사업 -자격검정 확인 시스템구축 사업 -경제특구 활성화 및 수출지원 역량강화 사업 -한.카 It 교육센터사업 -국내초청연수 50 명 -해외봉사단 22 명 -의사 1 명	36303.3
우즈베키스탄	49016	-통신망 현대화사업 -직업교육시설 개선사업 -직업교육개발사업 -교육정보화사업	21837.8	-보건소 건립사업 -한.우즈벡 IT 훈련원 건립 사업 - 국립지리정보체계구축사 업 -도서관정보화 지원사업 -직업 훈련소 기반구축사 - 응급후송시스템 구축사업 -국내초청연수 73 명 -해외봉사단 75 명 -의사 1 명 -NGO 지원 1 개사업	70853
타지키스탄	-		3060		-
키르기즈스탄	-		3830	전자정부기술이전 관련사업	-

출처: 외교통상부, ODA KOREA, 2010, 코이카 대외무상원조실적 2009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지역에서 전통적인 맹주로서의 지위에 있고, 석유 등 최근의 자원개발에 따른 경제 발전 성과에 따라 ODA지원이 다급한 양상도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개발 효과도 줄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큰 타격없이 꾸준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ODA 수원국 리스트에서 카자흐스탄과 같이 후일에 곧 나타나지 않을 국가로 평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조가 더 시급하고 뚜렷한 개발효과를 볼 수 있는 키르기즈공화국과 타지키스탄에 지원을 해야한다고 본다.

[표 3] 중앙아시아 4개국 2010년 전체 경제 성장률 (%)

	EBRD	EIU	IMF
우즈베키스탄	8.2	8.3	8
투르크메니스탄	12	9	12
키르기즈스탄	-0.7	3.5	4.6
타지키스탄	4	4	4

출처: EBRD 2010.5, EIU 2010.6, IMF 2010.4, *World Economic Outlook*

한국의 ODA공여는 키르기즈공화국과 타지키스탄에 대한 외교노력에 큰 효과를 줄 수 있으며, 그 중 산악지역과 사막지역에 위치한 타지키스탄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ODA지원 사업은 상대적으로 개발 효과도 클 뿐 아니라 부존된 자원의 미래 개발에도 연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한국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전략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자원개발로 인해 활발한 해외투자가 이뤄지는 자원부국과 키르기즈공화국과 타지키스탄 처럼 아직 경제 개발과 함께 유엔의 MDGs를 어렵게 이뤄나가고 있는 단계에 있는 국가로 구분하여 자원부국은 ODA지원이 아닌 자원 외교를 위한 협력을 해야 하며, 중앙아시아의 자원빈국인 국가에 대해서는 한국형 ODA지원을 중점으로 접근해 장차 여러분야의 협력 국가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한다.

III. 타지키스탄에서의 한국형ODA지원 - 수자원을 이용한 전력분야중심으로

키르기즈공화국과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중국 4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인구

650만명인 소국으로 국토의 93%가 산지이고 나머지 국토는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다. 독립 이후 구 공산세력이자 현 정부의 주축세력인 Popualr Front와 이슬람 민족주의 세력인 United Tajik Opposition 사이의 지역, 이념적 갈등으로 내전이 촉발되었으며, 수많은 난민과 사망자가 발생해 구소련 시절에 형성된 산업, 수출 기반이 급격히 약화되는 등 경제 여건이 악화되었다. 1992년부터 시작된 내전은 1997년 모스크바 평화 협정 체결로 종결되었다.

타지키스탄의 산업비중은 농업이 18.9%이며, 산업 및 건축업이 21.9%, 서비스업이 59.2%이며 주요 수출품목 중 알루미늄 (75%)과 면화이다. 타지키스탄은 연 20만톤 재배되는 면화와 30,40톤 생산되는 알루미늄외에는 별다른 외화가득원이 없으며, 산악지대인 지리적 조건과 인접국인 우즈베키스탄이 육상교통로는 물론, 항공, 교통까지 제한하고 있어 무역 증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다른 문제점으로 14억톤의 석탄, 500톤의 금, 10만톤의 은, 아연등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수송에 불리한 내륙에 위치해 있고, 광산까지 접근하기 위한 도로와 같은 인프라가 갖춰지지않아 금, 은 귀금속을 제외하고는 거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해외로부터의 투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경제 성장의 가능성이 제한적이다. 한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교통 인프라, 자원 개발시설 건설을 위한 ODA지원에 관심을 갖는다면 향후 에너지 개발에 있어서도 좋은 위치에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 할 수 있을 것이다.

타지키스탄의 경제는 1997년 이후 해외원조와 러시아에 거주하는 타지키스탄 교민들이 송금하는 연 6억불정도의 송금과 경제 규제완화로 인해 2003년부터 연평균 00% 경제성장을 실현해 왔으나 여전히 CIS국가중 키르기즈 공화국과 함께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1인당 GDP도 430달러에 불과해 국민 생활수준이 매우 열악한 세계에서 최고 빈곤국 중 하나로 분류되고 있다. 인구의 97%가 최저 수준의 소비를 하고 있고, 83%가 빈곤선 아래에 머물고 있다. 특히 북부 후잔드 지역과 수도 두산베 지역의 경제 상황은 비교적 양호하나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바다흐산 고원이나 라쉬트 계곡 지역의 경제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 의료시설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시설이 열악한 것도 사실이다. 그 중 경제 발전에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될 산업시스템의 활동을 저지하는 문제점의 원인인 전력문제가 가장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 평가된다. 에너지 공급의 인프라 낙후문제는 사회적 불만을 증가시키고 타지키스탄에 필요한 경제 성장에 심각한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가 국민의 삶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정치적 사회적 안정이 필요한것이 현실이다.

[표 4] 타지키스탄의 빈곤지수

Population, %. under minimum level consumption	96.00%
Population, %. under the poverty level	83.00%
Population, %. under 50% of poverty level	33.00%
%. the most poor (living on less than 1,075 USD per day)	17.00%

출처: World Bank and State Agency for Statistics of the Republic of Tajikistan, 2000

1. 타지키스탄 전력 현황

중앙아시아의 수자원은 근본적으로 불공평하게 분포되어 있다.(표5)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한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즈공화국과 이들 국가에 의존하는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으로 분리되어 있다. 키르기즈스탄이 중앙아시아에서 길이가 가장 길고 강물이 두번째로 많은 시르다리야 강 유역을 통제하고 있으며, 타지키스탄은 아무다리야강을 통제하고 있다. 시르다리야강 유입수량의 75.2%는 키르기즈공화국 영토에서 형성되고 있으며, 아무다리야의 74%의 유입수량이 타지키스탄 영토에서 형성되며, 중앙아시아 지역의 빙하 60%이상이 타지키스탄에 있다. 현재 이 지역의 수력에너지 자원은 에너지 소비의 27%정도만 제공하고 있지만 앞으로 필요한 전기에너지의 70%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중 타지키스탄의 총 연간 잠재 수력자원은 약 6천억 kWh이다. 전문가의 주장에 따르면, 중앙아시아의 석유와 가스 매장량이 60년 후면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어, 점점 이 두 지역의 수자원의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표 5] 중앙아시아국가의 수력 에너지자원 현황

Republics	Hydro power Resources. Twt. Hour.			
	Potential	Technical	Economic	In use
Uzbekistan	88	27,4	15	6,8
Kyrgyzstan	143	73	32	9,5

Tajikistan	300	144	88	15,8
Turkmenistan	24	5,8	5,8	-
Kazakhstan	20	20	10	1,7
Total	575	270.2	150.8	33.8

출처: Hydro power of the Aral Sea Basin TashFidro Proekt

세계 8위의 수력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연간 6만167 MWh의 전력 생산 잠재력이 있으나 현재 전체 수력자원의 5%인 170억 kWh만을 생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소련 시대에 건설된 수력발전소가 낙후된데다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한때 알루미늄과 면화와 함께 전력을 주로 수출했던 타지키스탄이 현재는 2009년 우즈베키스탄의 통합전력망 탈퇴¹⁴로 인해 전력난을 겪고 있고 겨울철마다 동사하는 사건이 일어날 정도로 열악하다. 전력부족으로 ODA지원으로 해외에서 들어온 농업, 산업기계를 돌릴 수 없어 방치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타지키스탄의 필요 전력량은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으나, 생산력은 단기간으로 볼때 미미하게 증가하기도 했지만, 독립후 20년 전체적으로 볼때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2009년 2010년 필요 전력량은 약 270억 kWh/hour로 2009년 생산량인 160억kWh/hour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표 6] 타지키스탄의 에너지, 연료 필요양

Type / Year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2000	2005	2010
Electricity, billion kWh, hours	19.4	17	15.5	14	14.7	13.9	23.3	25.7	2
Oil and oil products, million t.e.t	3.5	2.2	1.0	0.4	0.63	0.46	3.2	3.5	3
Fuel(not oil)	4.1	3.8	3.8	3.8	0.43	4.3	4.9	7	

¹⁴ 1998년 IGIA(Inter-Governmental Irrigation Agreement)타결 이후 여름에는 우즈베키스탄에 전력을 수출하고, 겨울에는 전력을 공급받는 방식으로 양국간 전력 교역이 이루어졌으나, 2000년 이후 타지키스탄이 전력부족을 겪으면서 수출이 1999년38.3억kWh에서 2000년 3.7억 kWh로 급감하면서 대급 지급에 어려움을 겪어 수입 또한 줄어들게 되자 우즈베키스탄과의 협정 불이행으로 우즈베키스탄이 협정을 파기하게 됨

products),
million t.e.t
Total

,7 4

출처: UNDP Tajikistan

[표 7] 타지키스탄 2009년 전력현황

	전력생산량	전력소비량	전력 수입량
2009	16.1 billion kWh	27.7 billion kWh	667.8 million kWh

출처: UNDP Tajikistan

2. 타지키스탄 정부의 전력난 해결을 위한 노력

타지키스탄 정부는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분야 개발을 위한 국가전략(2006~15년)’을 발표하고 2006년 170억 kWh에 불과한 연간 발전량이 Rogun, Sangtuda I, II 발전소가 완공될 2010년에는 264억 kWh로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해 국내 전력난 해결뿐 만 아니라 다시 전력수출국가로 인접국 중 전력난을 겪고 있는 키르기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에 수출을 하려고 계획했으나 거의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타지키스탄 정부의 국가개발 전략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진발생률이 높은 산악지대에 위치한 지리적 조건과 후진적인 댐 설계에 대한 사업성과 미흡으로 초기에 몇몇 유럽국가와 러시아가 투자를 원했으나 현재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로건댐건설로 인해 아무다리야 강과 시르다리야 강의 수원지에 대한 타지키스탄의 영향력 강화로 우즈베키스탄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진다발지역에 위치한 댐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인공재난가능성으로 국제 기구에 제지를 받고 있다. 더욱이 해외투자가 이뤄지지 않자 타지키스탄 정부는 국민당 로건댐 건설투자를 위한 주식을 일인당 한화로 80만원 가량을 구입하도록 강권하고 있다. 현재 타지키스탄 국민의 일인당 월평균 소득은 50\$이며, 현재 실제 예상 건설비14억달러 중 2억달러가 모아진 상태이다. 외국투자 부진과 정부 예산부족으로 인해 관련 인프라와 시설이 낙후되어 수력발전 실제

발전량은 잠재 능력¹⁵의 10%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에 의해 강요된 국민의 지분매입은 가계살림을 악화시킬것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타지키스탄 내부의 실정을 간과해 수력발전을 위한 댐건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보유하고 있는 타지키스탄의 수력 발전시스템과 지리적 안정성을 중심으로 점검해 현재 발전중인 발전소 중 발전 효율성이 높은 곳을 집중으로 개보수 하고 현대화 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표 8] 2009년 타지키스탄 수력 발전소 현황

발전소명	위치(강)	수용량 (MW)
Nurek	Vakhsh	3015
Baipaza	Vakhsh	600
Golovnaya	Vakhsh	210
Kairakkum	Syrdarya	126
Perepadnaya	Vakhsh	24
Centralnayay	Vakhsh	15
Varzob II	Varsob	14.4
Pamir	Gunt	14
Khorog	Gunt	10
Varzob I	Varsob	7.5
Varzob III	Varsob	3.5
Kayrak - Kumskaya	비가동	-
Varvarinskaya	비가동	-
Tsentralnaya Tajik	비가동	-

¹⁵ 타지키스탄의 연간 잠재적인 수력발전력은 연간 40,000MW(연간 전력생산능력 527 TWh2)로 추정하고 있음 (2008년 수출입은행 자료), Hydro power Resources of Tajic. SSR, Nedra, L자료에 따르면 타지키스탄의 연간 잠재 수력발전량은 60167Mwt로 추정되기도 함

남부의 Pyandj강과 동부의 Gunt강, Bartango강, 중서부의 Kafirnigan강 등에 총 10여개의 대형 수력발전소가 있으며, 총 약 4,090MW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유수량 및 저수지 수용량의 부족으로 겨울철에 전력부족 현상을 겪고 있으며, 노후된 시스템 문제로 잦은 고장 발생으로 지속적인 전력생산이 어려운 상태이다. 타지키스탄정부가 계획하는 로건담의 국외적 문제야기, 재원문제, 환경문제 등 여러 문제를 감안하여 이미 작동중이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발전소를 중심으로 개보수하고 가장 수력 잠재력이 높은 Pyandj강의 수원을 이용한 댐건설을 하는 방안도 있다.(표9) Pyandj강과 수력발전소 건설에 적합한 지역을 조사해 환경평가 이후 정한 기간동안 댐건설에 필요한 수원을 저장해 주위 국가와의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먼저 고려해 봐야할 사항이다. 이외에도 10MW 이상의 대수력 개발이 야기하는 생태학적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고려하여, 가장 시급한 지역부터 소수력 위주의 지원을 수행하는 것도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어, 여러방법을 동원한 수력발전분야의 개발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표 9] 타지키스탄의 수력자원 잠재력

River basins	Mean annual capacity, Mwt.	Mean annual energy, Twt. Hour.	Share in total volume, %
Pyandj	14030	122,90	23,2
Gunt	2260	19,80	3,73
Bartang	2969	26.01	4,93
Vandj	1191	10,34	1,96
Yazgulem	845	7,40	1,39
Kyzyl Su	1087	9,52	1,78
Vakhsh	28670	251,15	48
Kafirnighan	4249	37,22	7
Kara Kul Lake	103	0,90	0.17
Surkhandarya	628	5,50	1.03
Zerafshan	3875	33,94	6.38

Syrdarya	260	2,28	0,43
Total	60167	527.06	100

출처: Hydro power Resources of Tajik. SSR, Nedra, L

소수력을 이용한 전력생산은 현재 UN, UNDP를 비롯해 여러 선진ODA공여국들이 중요시하는 신재생에너지개발 분야중 하나로 지원의 효과는 MDGs에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지않지만, 거의모든 MDGs목표에 직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 시켜 기후 변화를 완화하는 한편, 에너지 빈곤층에게 지속가능한 전력과 개발 원동력을 제공하다는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산업 지원은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OECD DAC의 통계시스템의 원조목적코드에 등록되어 있는 신재생에너지 종류에는 수력, 풍력, 태양에너지, 지열, 바이오매스, 해양에너지가 있다. 이들 중 개발도상국에서 가장 여가가 깊은 에너지원은 수력으로 수력에 대한 지원도 압도적으로 많았다. 선진 공여기관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지원은 IBRD, IDA등 세계은행그룹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그중 World Bank의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현재 연평균 80억달러에서 2030년까지 4000억달러로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IV. 對 타지키스탄 전력 시스템 원조 전략과 프로그램

선진 원조국과 국제기관들의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례를 보면, 대부분 단일 프로젝트 지원보다는 관련 시장창출, 제도 정비, 인력양성과 훈련, 부대시설 건립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지원방식이 더 높은 성공율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중 세계은행이 필리핀에 지원한 "지속가능한 태양광 시장 종합정책", 아프리카 지역의 "Lightng Africa"가 성공적인 신에너지 분야의 일체 프로그램형 지원 사례로 볼 수 있다. 점차 기술집약적인 분야로 거듭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또 다른 위험요소로 작용되어 기술적 성숙이 이뤄지지않은 개발도상국에게 에너지 고립현상을 야기하지 않도록 적절한 기술이전과 인재양성등이 동반한 지원을 해야한다.

1. 원조 효과성 제고에 따른 원조실천 방안

원조 효과성에 대한 논의는 원조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할 정도로 오늘날까지 여러 전문가 집단에 의해 그 효과성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의 원조 효과성 논의는 세계 2차대전 이후 혹은 냉전시기와 또 다른 것으로 장기간에 걸친 개발 원조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발도상국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것으로 이른바 위조 산업의 발달로 원조의 전달 과정이 복잡해져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2000년대에 들어와 MDGs를 실현하기 위한 원조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2003년 로마에서 열린 OECD고위급 회담에서 원조조화를 위한 로마선언¹⁶이 채택된 후 파리에서 100여개 국가와 원조 기구들이 참석해 원조의 효과성에 관한 파리선언¹⁷을 채택하였다. 이후 2008년 가나 아크라에서 구체적 지침을 포함한 아크라행동계획을 채택해 최근의 원조 효과성 논의는 파리선언과 아크라행동계획 실천을 위한 기술적문제들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파리선언의 5가지 원칙은 수원국 주체성 존중, 수원국 국가전략 및 제도 존중, 다양한 공여국, 기관들과 협력도모, 적절한 감독과 사후평가, 공여국과 수원국이 원조 사업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상호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파리선언과 아크라행동계획인 50년이 넘는 국제원조 역사 속에 나타난 여러 실패와 시행착오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최선책으로 이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최고의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때문에 타지키스탄의 수력발전 개발 사업에 있어서도 파리선언의 5대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원조를 실시해야할 것이다.

2. 한국형 ODA 개발 협력 사업의 프로그램 방안

원조 효과의 제고를 위해 새롭게 시도되는 원조 실시의 방식으로 이른바 PBAs (Program Based Approach)라고 하는 프로그래밍이다. 앞에서 언급한 원조효과 제고에 관한 파리선언에서도 이전의 프로젝트 방식의 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가기 위한 방안으로 프로그램 접근방식 사업을 권고하고 있으며, 원조효과 제고와 국제적인 합의를 존중해 한국형

¹⁶ 로마선언 (Rome Declaration an Aid Harmonization) 2003년 로마에서 열린 OECD 고위급 회담에서 채택되었으며 원조의 거래비용을 줄이고 공여국의 원조정책 및 집행절차를 수원국 개발전략의 우선순위와 시스템에 조화시키기로 합의를 주 내용으로 함.

¹⁷ 파리선언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원조효과 제고를 위해 2010년까지 달성을 목표로 하는 구체적이고 행동 지향적인 원칙 및 세부 이행공약에 합의가 주 내용임.

ODA 또한 적극 실천해야한다. 한국적 개발협력 사업을 프로그램 접근 방식으로 프로그래밍하는 것은 우선 우리의 여건과 맞는 한국형 개발 협력 사업의 내용을 준비하는 것으로 또다른 말로 한국의 개발협력 사업의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개발경험 및 비교우위 등을 고려하여 대외 무상원조 사업 수향의 기본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한국의 비교우위요소와 주요 사업 콘텐츠에 관한 조사연구와 협력 대상국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된다. 다음 단계로 수원국의 오너십을 존중하여, 타지키스탄 정부의 여건과 현 전력수요, 국가전략에서의 전력사업 개발이 우선순위에라는 점을 우리의 협력 전략과 일치시켜야한다. 이 단계에서 수원국인 타지키스탄과 정책대화를 통해 타지키스탄의 정책 중점 및 전략을 파악해 개발 우선순위를 확인해야한다. 또한 이 단계에서 우리가 중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부문과 내용에 대한 협의 및 합의를 이룬다. 세번째 단계로 이미 같은 분야에 원조를 제공중이거나 계획중인 원조 공여국 등과의 협의 조정을 통해 우리 개발협력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고 사업의 중복이나 개발효과를 저해시킬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 하도록 해야한다. 이 단계는 원조 공여국간의 원조 조화를 도모해 개발협력사업의 실시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네번째 단계는 이전 단계에서 협의를 통해 준비된 사업을 구체적인 개발 협력 사업으로 프로그램화하여 심사하고 평가하는 사업시행 제반준비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타지키스탄의 전력사업에 관한 주인의식을 제고하고 행정제도와 체제를 적극 활용해나가는 측면등을 고려해야한다. 다섯번째 단계는 확정된 사업 계획을 실시하고 진행 사항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원조사업의 효과제고와 사업 결과의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한 모니터링 및 활동 보고가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여섯번째 단계에서는 사업을 종료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으로 사업에 중간평가, 종료평가, 사후평가로 세분화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되어지는 부분이 수원국인 타지키스탄주체가 중심이 되어 협력사업의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공여국인 한국과 함께 참여하여 양자간에 합의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사업평가를 실시해 타지키스탄의 참여가 보다 중요하게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해야한다. 여섯번째단계에서의 타지키스탄이 원조 프로그램 절차와 모든과정을 공개해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과에만 치중해 수원국의 인권을 중요시 하지 않던 이전 개발원조와 한국형ODA의 문제점으로 우려하는 공여국 중심의 한국적인 것에만 머무르는 일방적인 독자노선 원조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마지막 단계로 모든 결과에 관한 평가 이후, 원조로 인해 생긴 새로운 수력발전 시스템이나 댐을 타지키스탄 정부 스스로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그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종래 인재를 훈련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도록 해야한다. 또한 구소련시대의 시스템과 기술만을 보유하고 있는 타지키스탄의

기술약점을 보완하도록 수력발전 기술을 이전해 주는 것도 한국형ODA특수성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V. 결론

여타 국가와 다른 여건과 성격을 가진 한국만의 특이성을 내세운 한국형 ODA의 구체적 정책을 세우기 앞서, 최대 ODA실행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KOICA와 EDCF 법에 한국ODA의 이념과 목표, 전략등에 대한 내용부재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한다. 반대로 OECD DAC회원국 중 11개국이 각국의 고유한 원조 이념과 철학을 규정하는 법령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 20개국이 정책문서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비해 현 한국의 ODA는 한국형 ODA라는 구체적인 전략이 없는 모델과 매해 국제적 기준에 달하는 규모를 확대하는데만 급급할 뿐 한국만의 기본적인 목적과 이념을 확실히 세우고, 이에 맞는 ODA를 전략적으로 실행 하는데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먼저 현재까지의 ODA실적을 평가하는 절차를 정비하고 이전 결과들을 분석해 앞으로 한국형 ODA를 정립해 선진화 하는 방안에 보안점이 되도록 전략적 기반을 세워야한다. 또한, 국익을 위한 ODA에서 국익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해야하는데 국익을 단순히 국내 기업의 수출 판로를 열어주고 개도국 상대로 무역흑자를 위한 경제적 이익에 한정되지 않고 안보를 포함해 분야별 어떤 국익을 도모하게 위한 것인지, 이상주의적 ODA 실행으로 국가 이미지를 높여 얻을 수 있는 국익을 높이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의미 인지를 확실히 밝혀야한다. 한국만의 확실한 목표가 세워지고 이념이 성립될때 ODA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관심도 높아져 ODA를 위한 국내 인프라도 발전 할 것이라고 본다.

한국형 ODA 실행에 있어서 최우선시 해야 할 점은 수원국의 문화와 개발조건 면에서 공여국과 비슷하고, 공여국의 이전 사례에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 수원국의 관심과 의지가 있어야한다. 타지키스탄은 2007년 대통령 정상회담에서도 밝혔듯이 한국의 경제개발과 역동적인 사회인프라 발전 경험을 벤치마케팅하고자하는 의지가 있어 원조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기초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이 원조를 제공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 중 타 원조공여국과 기관에 소외된 국가인지 여부인데, 타지키스탄은 이미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주변 자원부국인 우즈베키스탄이나 투르크메니스탄보다 원조가 활발히 이뤄지지않고 있다. 이러한 지역을 선별해 한국형 ODA적용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개발효과성을 위한 최고 대안이라고 여겨지는 파리선언의 5가지의 원칙에 입각해 종래의 한국 국제 개발원조보다

성숙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 원조를 해야 할 것이다. 한국보다 원조 역사가 3배 이상 길고 큰 규모의 원조를 하는 영국도 60개국을 선택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OECD 원조공여국 중 최고 작은 규모의 원조를 하고 있는 한국은 130개국을 분산적으로 지원해 개발 효과성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지적할만한 문제점이다. 때문에 개발 가능성이 높고 우선적으로 원조가 시급한 국가를 선별해 한국의 에너지사업, IT, 사회 인프라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한국이 지원해 줄 수 있고 수원국이 바라는 것은 한국 개발의 두 중심 축이었던 경제개발과 인적자원 개발이고 타지키스탄에 제공될 수 있는 원조 또한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한국만의 특수성과 비교우위를 찾아 한국 개발원조의 차별화를 도모하려는 한국형 개발 원조 모델에 대해 심층적이고 실체적인 논의와 원조가 실행될 국가 지역 전문가와 원조지원되는 사업분야 전문가가 사업 사전계획과 사업 타당성등을 심층적으로 조사하는 제도를 도입해 실제로 실행하는데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참고 문헌>

- 정우진, 2010,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 한국적경험과 비교우위에 근거한 섹터별 프로그램, 연구자료 정책연구
- 박복영, 이계우, 이순철 외, 우리나라 대외원조 역량의 현황과 과제,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주동주, 김학기 외, 2009, 선진국의 ODA 공여실태 분석과 한국의 대외원조 전략
- 김대환, 2010, OECD/DAC 가입과 KOCICA 환경 및 기후변화 ODA추진전략, 코이카 국제개발협력 no.2
- 임소영, 2010, OECD/DAC Enviromet의 기후변화와 개발논의 동향, 코이카 국제개발협력 no.2
- 권혁주, 2010, 취약국가의 이해 : NCAF와 국제협력 기구의 논의를 중심으로, 코이카 국제개발협력 no.3
- 김귀곤 외, 2009,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한국의 ODA,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한국의 ODA전략연구
- 김계환, 2009, 자원부유 개도국의 경제발전 조건과 한국과의 경제협력 가능성, Issue Paper 2009-252 산업연구원
- 사공목, 일본의 자원,에너지 확보전략고 시사점,산업경제분석, KIET
- 이계우, 2009, 한국의 국제개발원조 조달시장 진출 정책, 국제개발협력 2009 no.4, KOICA

- 강인수, 2010, 한국ODA의 5대 쟁점과 한국형 ODA, CIES working paper 2010-1, 국제경제연구소
권을 외, 2006, 우리나라 대외원조정책의 선진화방안,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
ODA의 개혁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외교통상부 개발협력정책관실, 2007, 우리의 ODA철학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자료집
- 외교통상부 개발협력정책관실, 2008, 우리나라 대외원조 현황 및 정책방향
- 외교통상부, 2009,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외교(제12절 신아시아 협력외교, 60p.~), 외교백서
- 국무조정실, 2005, 국제개발협력 개선방안, 국무회의 보고자료(2005.11)
- 국무총리실, 2009,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제정에 따른 ODA정책 추진체계 개선(2009.12)
- 국무총리실, 2010,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제7차 국제개발협력 위원회 의결안건 제7-1호
- 성동기, 우즈베키스탄에서 활동하는 NGO의 특징분석-법적근거와 사례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2010년 하반기 주요국 경제동향 및 전망, 오늘의 세계경제
- Korea exim, 타지키스탄의 수력발전산업, 2008, 해외경제정보,
- 오영일, 2007, 초라한 한국기업의 중앙아시아 성장표, 경제정보, Lg주간경제
- 윤정인, 국격 어떻게 높일 것인가?, KIPA
- 이태주, 2009, 원조효과성에서 개발효과성으로: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논의
- 박번순, 2009, 국격제고를 위한 ODA정책, CEO Information No.730, 삼성경제연구소
- 강부식, 홍일표, 2008, 수자원분야 국제협력 현황 및 전망, Special Issue no.1, 해외수자원산업
- 고재남, 중앙아 정세변화와 한국외교의 과제, 동아시아정세 변화와 한국외교과제, 외교안보연구
- 박광순, 2010, 신흥 전력시장에 대한 주요국의 진출전략과 지원제도 연구, 제2차 중앙아시아
국내학술대회
- 윤성학, 오영일 외, 200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대중양아시아 진출 전략(제6장
중앙아시아대외환경분석: 우즈베키스탄의 나보이자유산업경제지역 경제발전전략과 한국으 협력
방안), 전략지역심층연구09-02, KIEP
- 박형중 외, 2008, 국제사회의 개발지원 이론과 실제, 통일연구원
- Alesina, Alberto and Dolla, Craay, 2000, Who gives foreign aid to whom and why?, *Journal of
Economic Groth*, no.5
- Berthelemy, Jean Claude and Arianee Tichit, 2004, Biliateral Donors Aid Allocation Decisions:
A Tree Dimensioal Panel Analysis, *International Review of Economics & Finance*
- Dewald M. and R. Weder, 1996, Comparative Advantage and Bilateral Foreign Aid Policy, *World
Development*, vol. 24, no.3

- Hudson, Michael, 2003, Super Imperialism: The Origin and Fundamentals of U.S. World Dominance, London, Pluto Press
- Eckhard Deutscher, 2010, Development Cooperation OECD 2010
- Republic of Tajikistan, 2007, Poverty Reduction Strategy of the Republic of Tajikistan for 2007~2009
- Evgeny Vinokurov, 2009, The CIS Common Electric Power Market, *MPRA paper* No.20910
- Stephen F. Cunha, Haradous Terrain: The Need for High Mountain Cartography and Remote Sensing in the Pamir Mountains, Tajikistan
- Shairbek Juraev, 2009, Energy Emergency in Kyrgyzstan: Causes and Consequences, EUCAM
- OECD, 2010, Ensuring Fragile States Are not Left Behind, Summary report
- UN, 2010, Millenium Development Goals Tajikistan Progress Report
- Ministry for Industry and Energy of the Republic of Tajikistan, 2007, Strategy for development of small scale hydropower of the Republic of Tajikistan